

2007 문화예술계 결산

문학·출판



지난 5월 작가 한승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씨가 독자와 함께 장흥 천관산 문화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향’ 부활 움직임 분주

올해 광주·전남의 문학·출판계는 ‘문향(文香)’ 부활을 위한 꿈을 거머쥔 한 해였다. 작가들에게 작품의 토대를 마련해줬거나 유명작가들이 태어났던 각 지역에서 이를 기리기 위한 문학관을 설립했고, 전국 독자들을 유혹하는 문학기행들도 마련됐다.

한국 문학이 부흥기를 맞고 있다는 전반적 평가에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지역 출신 중진과 신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꾸준했고 기간지 창간도 활발했다.

지난 5월 민족시인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 해남군 삼산면 봉화리 535번지 일원에 민족시인

시월 예정이어서 마니아층 독자를 섬리게 하고 있다. 소설가 송기숙, 이창준, 한승원, 이승우, 김석중씨 등 유난히 많은 문인들이 배출한 장흥은 문학특구로 조성된다. 장흥군이 19억원을 들여 대덕읍 언지리와 관산읍 신동리, 안양면 기산리 일대 57만8천㎡ 부지 매입에 나서는 등 특구조성사업이 가시화됐다. 문학특구에는 문학비공원, 석탑데마공원, 문학식물원, 문예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장흥은 ‘한승원 문학산책로’, ‘천 해도 장편소설 ‘추사’를 출간하는 열정을 보였다. 한씨의 딸 한강씨는 소설집 ‘채식주의자’를 출간했다.

관산 문화공원, 영화 ‘천년학’ 촬영지 등으로 이미 문학기행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인터넷 서점 YES24 주최 ‘황석영·은희경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 캠프’가 고창 선운사, 순천 갈대밭, 낙안읍성 등에서 열려 200여명의 네티즌 독자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결출한 문인들이 다수 배출한 광주고에 ‘광고문학관’이 설립된 것도 올해 지역 문학계에서는 큰 뉴스였다. 고대 도서관 2층에 마련된 문학관에는 박성룡, 이상부, 조태일, 문순태 등 광주고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육필원고 등이 전시됐다. 문학관 설립이나 문학기행 유치

가 문향 부활을 위한 표면적 노력

이라면, 각종 심포지엄과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지역 문학·출판계의 내실을 다지게 했다. 시전문계 간지를 발행해온 ‘시의사람’이 지난 가을 문학종합지 ‘서정과 상상’ 창간호를 냈다. 또 기간지 ‘문학들’은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뽑은 우수문예지에 선정됐다.

폐암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도 이창준씨는 최근 소설집 ‘그곳을 다시 찾아야 했다’를 펴내면서 견재함을 과시했고, 한승원씨는 지난해 ‘소설 원료’에 이어 올해도 장편소설 ‘추사’를 출간하는 열정을 보였다. 한씨의 딸 한강씨는 소설집 ‘채식주의자’를 출간했다.

올 초에는 광주 출신 김희진씨가 단편소설 ‘허’로 세계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언니 은진씨와 함께 쌍둥이 자매소설가로 이름을 날렸다. 5월에는 광주의 간호사 출신 소설가 정유정씨가 장편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클러’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교료 5천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장흥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는가 하면, 화순 인근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방랑시인 김상갓의 삶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토론회와 문학기행 행사도 열렸다. <끝>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문학관 설립·특구 조성...문학기행·캠ป์ 성황

중진·신인 활동 활발...기간지 창간도 이어져

제53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Table with columns for grade (구분), song title (곡명), and performer (출연부). It lists various musical pieces for different grade level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광주지역 10개 시·군·구에서 10개 시·군·구별로 지정곡을 발표한다. 발표곡은 10개 시·군·구별로 발표한다. 발표곡은 10개 시·군·구별로 발표한다.

22일 '오마이캠' 영상발표회 and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문화유산 역사교육 강좌. Includes details about the video release and the lecture series.

Advertisement for Bingkot (빙긋)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about children's books and educational programs. Title: '엄마는 왜 뒤에서 빙긋 웃었을까요?'